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호스피스팀장

최 성 은

들어가는 말

‘말기 질환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과 그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호스피스’는 전인간호와 총체적 돌봄을 추구하며 팀접근이 중요하다. 팀 구성원들은 의료 전문직 및 성직자, 사회복지사, 영양사, 치료사, 상담가 등의 다양한 전문직과 함께 ‘자원봉사자’이다. 이 중 자원봉사자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호스피스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호스피스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를 뜻하는 영어의 ‘volunteer’란 라틴어 ‘볼룬타스(voluntas)’에서 유래하였으며, ‘볼룬타스’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er’이 붙은 것이다. ‘볼룬타스’는 의무감이나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유 의지라는 뜻이다.

‘자원봉사자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 통제, 개선하는 일을 다루는 여러 조직 및 기관에서 보수없이 자발적으로 서비스하는 개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호스피스 총론, 2002).

자원봉사자는 스스로 원하여 다른 사람들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시간과 활동을 베푸는 자원봉사자가 이 세계 곳곳에 있기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호스피스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존재와 역할은 호스피스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큰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하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말기 질환을 가진 분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할 수 있다. 전문직 호스피스 종사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대상자들을 위해 여러 전문적 업무들을 수행해야 하는 반면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많은 수가 대상자 한 분을 위한 하나의 봉사팀을 이루어 대상자의 가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행할 수가 있다. 호스피스 기관들은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개발하고 필요한 대상자에게 연결할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는 바람직한 호스피스 돌봄을 위한 무궁무진한 자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말기 질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의 증가와 호스피스 운동의 노력으로 64개의 호스피스 기관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7개 기관에서 11,006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윤영호, 2002).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64개 기관의 전문직 호스피스 팀원들의 수를 전부 합해도 449명인 데 반해 자원봉사자의 수는 이의 24.5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비중은 매우 커서, 호스피스의 발전은 자원봉사자들의 자질과 성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호스피스를 위해 어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되어야 할까?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 대한 성찰은 자원봉사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매순간 해야 할 자원봉사자의 호흡과도 같다. 호흡을 통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신선한 산소를 흡입하듯이, 바람직한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허물을 배출하고 늘 새로운 힘으로 재충전 되

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일개 호스피스 기관에서 현재 1개월 이상 호스피스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15명에게 전체 13개 문항 중 대상자 특성(성별, 연령대, 직업, 소속단체, 종교, 자원봉사기간)을 묻는 6개 문항을 제외한 7개 문항에서 각 항목마다 6~8개 항목을 주고 우선순위로 표시하는 무기명식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겸손, 인내, 자비, 성실함, 부지런함, 근면의 6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자질로는 겸손(5명), 자비(5명), 인내(3명)이었고, 두 번째로 중요한 자질로는 인내(5명), 겸손(5명), 자비(4명), 세 번째로 인내(4명), 겸손(3명), 자비(3명), 네 번째로 성실함(8명), 다섯 번째로 부지런함(6명), 근면(4명), 여섯 번째로 근면(7명)이었다. 6개 항목 중 사랑이 빠진 것은 호스피스 자체가 사랑의 돌봄이기 때문이었다. 또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최고득점 항목만 표시하면 1순위는 봉사시간엄수(7명), 2순위는 대상자와의 약속지키기(10명), 3순위는 비밀 지키기(8명), 4순위는 재교육 참석(7명), 5순위는 자기 재충전(4명), 6순위는 봉사자모임 참석(5명), 7순위는 적절한 휴식(6명) 순이었다.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 해야 할 활동으로는 대상자의 신체적 돌봄이 1순위(10명)였고, 정서적 지지가 2순위(10명), 영적 간호가 3순위(11명), 대상자의 가족 상담이 4순위(9명), 대상자의 소원 들어주기가 5순위(6명), 대상자를 위한 경제적 후원이 6순위(4명), 유기족 간호가 7순위(6명)였다. 자신 스스로 더 개발해야 할 자질이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인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비였다. 스스로 더 잘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봉사시간엄수가 1위였으며, 더 해 보고 싶은 활동으로는 대상자의 영적 간호가 1위(8명)였다. 바람직한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해 호스피스 기관으로부터 받길 원하는 도움에는 체계적인 재교육과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1, 2, 3위를 차지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자아성찰의 기회가 되었고, 이들 15명의 자원봉사자 집단의 전체적인 봉사활동 상황과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었으며, 재교육과 재충전을 통해 더욱 바람직한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에 대해 5명의 전문직 호스피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높은 우선순위의 두 항목씩만 말하면, 가장 필요한 자질로는 사랑과 자비였고, 가장 잘 지켜야 할 사항은 비밀 지키기, 약속 지키기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는 신체적 돌봄과 정서적 지지라고 답하였다. 그 이유는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대상자를 가족처럼 여기며 기쁘게 봉사할 수 있고, 대상자와의 비밀이나 약속을 지켜야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어떤 다른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신체적 활동과 정서적 지지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결과는 자원봉사자들의 답변과도 비교적 일치하였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답변에서도 바람직한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활동으로 1순위가 신체적 돌봄이었던 것은 말기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처음 만나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먼저 대상자가 가진 신체적 필요를 채우도록 교육한 이 호스피스 기관의 자원봉사자 교육 효과인 듯하다.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을 받은 대로 대상자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 대상자와의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계속적으로 다른 활동들을 수행할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숙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 많은 종류의 자원봉사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미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남다른 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래 전부터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대하게 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살펴보면 사회 경험도 많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겸손한 분들이 많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되어 활동하고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바람직한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치하해 드리고 싶다. 그러므로 오늘 소중한 자원봉사자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과제는 ‘단순히 바람직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더욱 바람직한 자원봉사자가 되기 위하여”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더욱 바람직한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일까?

1. 준비된 자원봉사자, 준비하는 자원봉사자

함께 일하면서 대할 때, 호스피스를 위해 준비된 자원봉사자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인생의 여러 경험과 자질, 인격적 성숙이 구비되어 마치 호스피스를 위해 특별 주문된 자원봉사자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이런 분들과 같이 다 준비가 되어야만 호스피스를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호스피스를 할 엄두도 못하게 될 것이다. 준비된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우리는 가능성에 눈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가족 중 호스피스 경험이 있는 자원

봉사자 보다는 없는 자원봉사자가 더 많다. 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호스피스 케어 요구도 분석’에서 호스피스 케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 중 호스피스 경험 여부를 변수로 두었을 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가족 중 호스피스 경험이 없을수록 호스피스 케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현 등, 2002)는 결과를 통해서도 검증된다. 즉 가족 중 호스피스 경험이 없던 자원봉사자들이 호스피스를 하면서 호스피스 대상자를 통해 호스피스 경험을 가지게 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인생 전체를 걸쳐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 분들은 호스피스 자원봉자로 부름을 받은 분들이다.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 철학, 역사, 대상자의 특성, 호스피스 간호법에 대해 배우며, 준비하기 시작한다. 이 중 거듭 확인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살아가고 있는 호스피스 대상자

호스피스의 개념 전달에 있어서 호스피스가 죽음과 직결되어 임종간호인 것으로만 오인된 적이 있었다. 임종간호는 호스피스 간호의 한 분야일 뿐이며, 그것도 대상자가 임종과정(dying process)에 있는 몇 분부터 몇 일간의 기간에 국한된 간호이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임종과정은 3~4일 정도가 평균이다. 어떠한 목적이든지 호스피스를 임종간호로만 오인하게 하는 홍보는 금해야 할 사항이다. 대상자들의 죽임 압박이 마스크를 통해 대중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후원모금활동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올바른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여 호스피스를 ‘죽음의 사자’로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바람직한 호스피스 활동에 오랫동안 큰 장애물이 되었다. 호스피스는 말기 질환을 가지고 살고 있는(living) 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돌봄이다. 호스피스 대상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어려움 가

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 분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말기 질환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다. 호스피스가 전통 의학과 다른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통 의학은 대상자를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죽어가고 있는 환자로 보며 절망할 뿐이지만, 호스피스는 그분을 아직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분으로 보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해 드릴 것이 많다는 희망 가운데 돌본다.

2) 호스피스의 목적은 '사랑'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사랑과 우리나라는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다. 호스피스의 목적에 있어서 늘 확인해 볼 것은 우리가 진정한 호스피스의 의미에 충실한가 하는 점이다. 호스피스의 뜻이 '손님과 주인 사이에 따뜻한 대접을 주고받는 마음의 자리'임을 생각해 보면, 호스피스는 '사랑'이 목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자기 종교를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대상자로 하여금 종교적 거부감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호스피스를 배척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말이 앞서서 종교적 강요나 설교는 종교가 다른 대상자로 하여금 자기 방어적, 패쇄적이 되게 만들고 호스피스를 전도단으로 오해하게 한다. 강요적인 전도는 궁극적으로 대상자가 받아야 할 영적 간호조차도 거부하도록 만들 수 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 신념의 실천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점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지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전도를 목적으로 한 호스피스'가 바람직한 호스피스를 저해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이 점을 주의하여 대상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을 베풀다가 대상자 자신의 영적 요구에 의해 종교를 찾을 때 필요로 하는 종교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은 대상자의 영적 안녕을 도모하는 자연스러운 돌봄이다. 이것은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이다.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호스피스의 뿌리는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이 뿌리라면 사랑의 열

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 전도가 뿌리라면 우리가 대상자에게 접근하기도 전에 그것은 대상자에게 괴로움을 주고 거부감과 관계 단절을 열매로 맺을 것이다. 순수한 사랑에는 실패가 없지만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호스피스를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항상 기억할 것은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상자들을 그 분들의 생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

3) 순수한 동기

바람직한 자원봉사자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동기를 가진 자이다. 봉사를 통해 자신의 야망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 인정받음을 구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자원봉사의 동기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순수한 동기를 가진 분들은 호스피스 기관이나 단체의 일을 할 때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순수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나 호스피스 기관과 경쟁적이 되고, 우월과 열등감이 생기고 자기중심적이 되어 그 결과 갈등과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또는 호스피스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순수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우리 자신의 순수함이 변색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항상 내면을 성찰하여 순수한 동기를 유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호스피스 간호를 준비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호스피스 케어 요구도 분석' 연구에 의하면,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이 정보영역에서는 질병과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통증 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 적절한 음식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의 순서로 높은 요구를 나타냈고, 신체적 영역에서는 욕창관리 및 예방, 통증완화를 위한 관리, 치료시 부작용 관리 순서로 높은 요구를 나타냈다. 정서적 영역에서는 의료인과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도와줌, 외로움과 소외감을 함께 함,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를

언도록 도와줌의 순서였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는 의료보험지원확대를 도와줌, 경제적인 지원을 합의 순서로 요구를 나타냈다(조현 등,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연구지원, 2002).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전반적인 호스피스 간호를 습득했다 할지라도, 다양한 호스피스 대상자들과의 만남은 항상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갈급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기억이 희미하거나 의문점이 있을 때, 배웠던 교과서를 다시 들춰보고 상가하거나, 호스피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스피스 기관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호스피스 간호를 위해 신체적 영역, 정서적 영역, 영적 영역, 경제사회적 영역 등 각 부분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볼 수 있는 매뉴얼(자원봉사자 수첩)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자원봉사 활동을 미리 준비함

(1) 대상자를 관리한다.

봉사 대상자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되묻지 않도록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 두어도 될 것을 알아본다. 말을 조심해야 할 대상자의 과거력이나 질병에 대한 인지 정도를 의료인이나 가족을 통해 미리 파악한다. 말기 질환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수용정도나 성격에 따라 질병명을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가급적이면 대상자가 먼저 자신의 병이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기다리거나 들어준다. 바람직한 자원봉사자는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경청하기를 늘 힘쓴다. 대상자의 특성을 연구하여 보다 개별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대상자를 돌보는 동료 자원봉사자와 다른 호스피스 팀원들과 의논하고 협력한다.

(2) 자신을 도구로 준비함

바람직한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 자신을 늘 준비하는 사람이다.

개방적이고, 긍정적이고, 사리분별력이 있는 자원봉사자는 대상자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한다. 예, 아니오의 패쇄형 질문보다는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개방형 질문(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을 늘 사용하도록 한다. 호스피스 대상자의 특성이나 과거력에 대한 비판이나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해야 한다.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자원봉사자는 조화롭고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조화를 추구하며, 균형성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속한 사회단체나 종교 단체 등 여러 영역에서 조화로운 생활을 하고, 자원과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 자원봉사에 있어서도 자신의 삶의 다른 영역이 지나치게 희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봉사자 자신과 가족에게도 서로 유익하고 발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해야 한다. 조화와 균형 있는 자원봉사자는 대상자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조화와 균형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가 쉽다.

또한 속해 있는 호스피스 기관이나 단체와의 관계에서 그 기관의 운영 원칙이나 철학, 종교 및 특수성과 체제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며 활동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바람직한 자원봉사자는 겸손과 감사가 특징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없는 자에게 나눠준다는 우월감으로 베푸는 자원봉사는 상대적으로 대상자로 하여금 열등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우리의 대상자는 피해의식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건강하여 자신을 위해 봉사하러 온다는 것조차 참기 힘든 상황일지도 모른다. 죽어가고 있는 자신과 대조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와 질투를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나 행동이 대상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

므로 대상자들을 이해하기(understand) 위해 그들 아래(under) 서야(stand)한다.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대상자들이 쉽게 우리에게 기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겸손은 옷차림에서, 얼굴 화장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 검소한 옷차림과 최소한의 수수한 단장이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위화감을 일으키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외모가 될 것이다. 파티에 갈 때와 일하러 갈 때의 옷차림이 다른 것처럼, 자원봉사자의 옷차림과 외모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동료 봉사자들과 호스피스팀과 상호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봉사자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줄 수 없기에 팀웍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바람직한 자원봉사자는 대상자의 필요에 대해 잘 보고하고 호스피스팀에 잘 의뢰하는 사람이다.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자원봉사자는 대상자의 거울이 되어 대상자로 하여금 현재 처지에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감사는 우리나라는 것이기에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말이나 권면을 할 필요는 없지만, 감사의 태도는 거울처럼 비추어준다. 감사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현재 함께 있는 대상자와 공동으로 느끼고 나눌 수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소유나 환경을 감사하는 말을 나누면 그것은 가진 자의 자랑으로 들릴 위험이 있다.

우리는 대상자와 함께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오늘의 만남을 감사하고, 대상자와의 소중한 대화를 감사하며, 함께 바라보는 하늘이 있음을 감사하고, 대상자의 가족에게 감사하고 함께 일하는 의료진과 호스피스팀원들이 함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다.

2. 완성을 향해 계속 진행 중인 자원봉사자

어느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다. 그래서 서로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내 자신이 공사 중

이듯 다른 사람도 공사 중임을 알기에 누구나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어느 누구보다도,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1)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전문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호스피스가 대상자 중심의 전인간호이며, 총체적 돌봄이고, 개별적 간호, 증상 완화 간호, 유가족 간호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호스피스 자체도 특별하지만 호스피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특별간호영역이 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동안 각 영역에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면 전문성을 갖게 된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호스피스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발견하여 실무를 익히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자가 교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자원봉사자와 전문적 자원봉사자의 구별은 직업이다. 전문적 자원봉사자는 이미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 전문직을 가지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 여유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호사로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서 근무 시간 외에 가정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봉사하거나,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심리상담사가 호스피스 기관의 상담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경우들이다. 반면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는 전문직은 없지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실무와 경험이 축적되어 호스피스 안에서 전문 영역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 사무 행정 전문 봉사자, 유가족 전담 봉사자, 영적 간호 담당 자원봉사자 등이다.

2) 책임감 있는 자원봉사자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책임감 있는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팀의 보배

로운 존재이다. 호스피스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하든지 주어진 일과 시간동안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

대상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약속에 대한 책임은 대상자와 신뢰관계 형성의 기본이다. 약속 시간이나 해 주기로 한 일에 대해 철저히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약속이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도록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 활동 후 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 기록에 대해서는 진실하고 구체적으로 사실을 잘 작성하여야 한다. 자신의 이름을 직접 적어 서명하는 것인 만큼 기록된 내용에 대해 진실성을 보장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확실치 않은 것을 추측해서 쓰지 않도록 하고 확인된 사실을 적으며, 꼭 인계해야 할 심증이 가는 일은 추측의 근거와 정도를 정확히 하고 어디까지나 추측임을 주지시킨다. 자신이 기록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며,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대상자 간호를 위해 반드시 인계하거나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글로만 남기지 말고, 제대로 인계나 보고가 되었는지 반드시 말로 확인해 보도록 한다. 즉, 다른 팀원이나 봉사자들이 자신이 표현하려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정확한 의사소통은 호스피스 대상자와의 관계에서나 호스피스 팀 내에서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3) 신뢰할만한 자원봉사자

바람직한 자원봉사자는 신뢰할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비밀을 나누고 중요한 일을 의논한다. 마찬가지로 호스피스 대상자들도 신뢰할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나누고 중요한 일을 의논한다. 자원봉사자나 다른 호스피스 팀원들은 대상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 3자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가족이나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쉽게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된다. 호스피스 대상자들은

외롭고 힘든 과정을 겪는 동안 이야기 동무를 찾는다. 이들에게 자원봉사자라는 존재는 자신의 내면을 나눌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진 상대가 된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가 신뢰할만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면 호스피스 대상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대상자가 자원봉사자를 믿고 비밀을 나눈 후, 비밀을 지켜주기를 원할 때 자원봉사자는 일단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만일 그것을 호스피스팀 전체가 아는 것이 대상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대상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여 대상자가 직접 말하게 하거나, 직접 말하기가 속쓰리우면 대신 말해 줄 수 있도록 대상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 대상자가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사항을 허락을 받고 호스피스팀 내에서 나눌 수 있었다면, 호스피스 대상자를 돌보기 위해 나눈 이야기들을 호스피스 팀 외에 다른 곳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준수사항이다. 우리가 돌보는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호스피스 팀 안에서의 대상자에 대한 회의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한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만약 대상자가 호스피스팀에게 은밀하게 나눈 이야기가 떠돌게 되면 대상자가 가지고 있었던 호스피스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따라서 어렵게 형성한 친밀한 관계도 깨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팀과의 관계에서도 신뢰할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맡겨진 일과 맡겨진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임무 완수는 신뢰의 밑바탕이다. 임무 완수를 위해서는 완수해 낼 수 있는 일의 범위와 한계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한계가 불분명한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일을 맡은 후 감당해 내지 못함으로써 호스피스팀을 당황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린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일을 맡기 전에, 대상자를 맡기 전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대한 구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일을 적절히 배당받을 수 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솔직하고 겸손한 자원봉사자와는 함께 일하기가 좋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을 맡으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것을 감당하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자원봉사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된다.

4) 함께 일하기를 즐기는 자원봉사자

호스피스스는 팀접근이며, 자원봉사자는 그 팀의 일원이다. 또 한 명의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팀의 일원이다. 자원봉사자가 가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자원봉사자 한 명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다. 한 자원봉사자가 한 호스피스 대상자와 친밀하여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다하여도, 혼자서 대상자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다. 자원봉사자의 본분으로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원봉사자라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는 간병인(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의 한 여유 부분을 자원봉사로 할애하는 사람이다. 지나치게 자신에게 매달리고 집착하는 호스피스 대상자를 만났을 때, 그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 함께 있어주는 것도 좋지만 보다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더욱 좋다. 자신만이 이 대상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원봉사자도 이 대상자를 돌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주어야 한다. 팀원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행한 하나의 행동이 팀 전체에 미칠 여파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처음에는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 있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자원봉사자 자신도 지쳐서 처음만큼 해주지 못할 때 이전에 해 준 것을 기억하고 대상자가 참기는커녕 마음이 식었다며 원망하거나 관계가 더 서늘해질 수 있다. 자원봉사자 자신의 체력과 자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늘 다른 팀원들과 함

께 대상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봉사 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다른 팀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때때로 예외와 융통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함께 일하기를 즐기는 자원봉사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혼자서만 그 대상자를 돌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호스피스팀의 한 일원으로 작은 부분 봉사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자이크처럼 대상자에게 호스피스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대상자에게 다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며, 무엇인가 드러나는 봉사를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호스피스팀이 자원봉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부분, 작은 재능, 단지 곁에 있어줌이나 말 한마디라도 즐거이 나누는 것이다. 자신이 커다란 모자이크 그림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겸손한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함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

함께 일하기를 즐기는 자원봉사자는 의논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자신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다른 팀원들에게 의뢰한다. 그래서 대상자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문제 해결자가 된다. 이는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결함으로써 자원봉사자가 호스피스팀 원으로서 문제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된다. 잘 의논하고, 잘 의뢰하는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자원봉사자

바람직한 자원봉사자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과정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이다. 과정이 없이는 결과도 없고, 결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어느 누구보다

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과정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돌보는 호스피스 대상자들은 말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며, 결국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죽음을 인생의 일부분으로, 삶의 한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 대상자를 돌보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상자들의 죽음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호스피스팀의 노력에 의해 이상적인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늦게 의뢰가 되었다든지 가족간의 심각한 갈등이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대상자와의 관계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때, 우리가 과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결과를 중시한다면 엄청난 허무감으로 인해 호스피스의 일을 계속 감당하기가 힘들게 된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호스피스 대상자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음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일의 과정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함께 하는 지금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기에 너무나 소중하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매 시간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혹 시간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여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낙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3.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신체적 간호, 정서적 지지, 영적 지지, 환경 간호, 사회경제적지지, 호스피스 기관 돕기 영역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바람직한 호스피스의 개념과 정신 철학을 이해하고 대상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이해하는 사람이 이어야 한다.

1) 신체적 간호

몸 닦아주기, 얼굴 씻기기, 양치질 돕기, 입안 닦아

주기, 입술에 바세린 발라주기, 입술에 젖은 거즈 대주기, 목욕시키기, 머리감기기, 머리 빗기, 옷 갈아입히기, 전신 안마, 손발 주무르기, 팔다리 마사지, 등 마사지, 휠체어 태우기, 체위 변경, 가래 뽑기, 대소변 치우기, 기저귀 갈아주기, 변기 대주기, 섭취량·배설량 측정, 이마에 수건 대주기, 얼음찜질, 온찜질, 욕창 관리, 소독약 발라주기, 연고 발라주기, 음식 먹이기, 위장관 영양 주입, 체온 재기, 맥박 재기, 호흡수 재기, 손톱이나 발톱 깎아주기, 의뢰기 구입 심부름, 이미용 봉사, 약 먹이기, 대상자가 먹고 싶은 요리해주기, 음료 운반이나 도서대출 서비스, 적절한 운동시키기, 함께 산책하기, 외출을 도와주기, 가족과 함께 병원 데려다주기, 대상자를 위해 운전(수송)하기, 대상자의 안전을 지켜줌, 기타 등등

2) 정서적지지

대상자의 이야기 들어주기, 적극적 경청, 대화나누기, 조용한 음악 들려주기, 생일카드 쓰기, 대상자의 기념일 축하해 주기, 소설이나 수필 책 읽어 주기, 시 낭송, 노래 불러주기, 그림 보여주기, 소원 들어주기, 대상자가 만나길 원하는 사람에게 연락함, 전화 상담, 가족 상담, 가족 갈등 중재, 가족들에게 임종시 대처해야 할 정서적 변화에 대한 안내를 해 줌, 임종시 곁에서 대상자와 가족들을 지지함, 빈소 찾기, 빈소에 호스피스에서 전달하는 근조기나 근조화를 전달함, 유가족 모임 준비 및 참석, 유가족 상담, 유가족 방문, 유가족 위로 카드 쓰기, 유가족 유인물 우편발송, 대상자 추모 모임 참석 등 관심과 애정을 표현한다.

3) 영적지지

병원의 임상목회자에게 대상자 방문을 의뢰함, 성경(경전) 읽어주기, 성경낭송테잎 들려주기, 찬송가 불러주기, 찬송가 테잎 들려주기, 찬송가 함께 부르기, 신앙관련 글이나 서적 읽어주기, 영적인 주제에 대한 대화나누기, 침상 종교 예식 참석, 함께 기도해주기, 혼자 대상자를 위해 중보기도 함, 평소 영적 관심사를 나누던 사람들을 불러줌, 침상 세례를 받도록 도와줌,

대상자 요구에 따른 신앙 안내, 살아온 인생에 대한 긍정적 정리와 가치 부여를 격려함, 대상자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관계들에 대한 청산을 격려함, 대상자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격려함, 대상자가 믿는 절대자와의 관계가 원만하도록 격려함, 대상자가 평소 알고 지내거나 특별히 원하는 성직자와의 만남을 주선함, 대상자의 신앙을 격려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지함, 임종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적 현상들에 대해 가족들을 안내하고 함께 대처함, 임종 시 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 지지 모임 주선(예, 임종예배)

4) 환경적 돌봄

호스피스 대상자의 침상 시트 갈기, 침상 정리, 침상 주변 청소, 휴지통 비우기, 공기를 환기시킴, 대상자가 원하는 집안일을 해줌(시장보기, 빨래, 설거지, 김치 담그기, 냉장고 닦기, 가구 닦기, 가구 광택내기, 목은 때 지우기), 가정 방문시 집안 청소, 대상자의 가족들에 대한 대상자의 역할을 대신함, 대상자가 외롭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

5) 사회경제적 지지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거나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함, 대상자 후원을 위한 1일차집이나 바자회에 참여함, 호스피스 기관의 경제적 후원자가 됨, 대상자의 집에 밑반찬을 만들어 갖다 줌,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함, 호스피스 기금 모금을 홍보함, 자신이 속한 단체에 호스피스 대상자를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함, 인맥이나 학연 등 사회 자원들을 호스피스와 연결함(예, 호스피스 기금을 위한 음악회 개최), 대상자가 보건소 차량이나 병원 또는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함.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임종 소식 알리기, 장례식장 안내, 장례식 참여, 장례 손님 접대,

5) 호스피스 기관 돕기

호스피스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 행정 업무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활동이다. 호

스피스 대상자들을 직접 보살피는 것보다 호스피스 기관이 운영되는 데 필수적인 사무, 행정을 돕는 것이 적성에 맞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을 것이다. 기관 내의 잡다한 사무와 행정적인 처리, 자료 정리, 전화 받기, 문서 작업, 소식지 원고 모집, 제작 및 발간 우편 발송 등과 대외적으로 호스피스 기관을 홍보하고 소개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일, 후원 단체나 업체를 발굴하는 일 등 많은 일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활동은 직접 대상자를 돌보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대상자에게 호스피스 간호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호스피스 기관에 전문적인 사무직원이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자원봉사자들 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능력과 책임감 있는 분들이 호스피스 기관의 사무, 행정, 또는 관리 보조를 담당해 준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상냥하고 친절하게 전화만 받아주는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그 호스피스 기관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질 것이다. 작은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일들이 많다. 어떤 형태로든 호스피스 기관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호스피스 사무, 행정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져 각 기관마다 더욱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4. 바람직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호스피스 기관이 할 일

자원봉사자들이 호스피스 기관에 바라는 도움은 체계적인 재교육과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충전시켜주는 것이었다. 호스피스 기관에서는 매월 정기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을 통해 재교육을 하고, 사례 발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자원봉사자들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봉사 내용을 살펴보고,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들 자신도 각기 다른 상태와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므로 서로의 성격 차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호스피스 기관에서는 갈등을 피할 수 있

도록 이를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전문직 봉사자들이나 전문 상담가가 있어 자원봉사자들을 1:1 또는 그룹으로 상담해 주고, 어려운 일이나 힘든 점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스피스 대상자들도 지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팀원들 간에도 서로서로 지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람(人)임을 늘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사람 '인'자가 두 획의 글자들이 서로를 의지하여야 반듯이 서 있을 수 있듯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 간이나 호스피스 팀원들 간에도 서로 서로 지지해야 호스피스 기관이 반듯이 서 나갈 것이다.

호스피스팀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성격적으로 자책감이 많거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원봉사자들이 호스피스 봉사를 마치고 나서 마음을 정리하고 자기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만일 자원봉사자들이 호스피스팀 내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그 스트레스를 풀며 가족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것은 나누면 다들 좋아하겠지만 힘든 것을 나누면 가족들이 당연히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하느냐며 말릴 것이다. 힘든 일은 함께 호스피스를 하는 동료 자원봉사자들이나 호스피스 팀원들과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급적이면 호스피스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는 대상자 스스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거나 호스피스 팀원이 봉사 중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스피스 기관에서는 봉사자들이 오랜 봉사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안식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봉사했던 대상자의 임종시 자원봉사자에게 약간의 휴식을 줄 수 있다. 만일 가족 중 사별의 경험이 1년 이내에 있는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후라도 사별 후 1년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봉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자원봉사 도중 사별을 경험하

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자신의 슬픔 극복 기간에 따라 약간의 융통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족사별 후 1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호스피스 기관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절한 대접과 격려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실을 따로 마련하여 탈의 및 자원봉사일지를 작성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휴게실을 두어 봉사자들 간에 서로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건의함을 만들어 자원봉사자들이 건의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자치회를 만들어 자원봉사자들끼리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다.

호스피스 소식지를 통한 지상 강좌나 자원봉사자들의 동정, 후원 상황, 자원봉사자들의 경험 사례, 대상자나 유가족들의 글들을 나누면 더욱 좋을 것이다.

끝맺는 말

최근 자원봉사의 개념은 단순한 자선이나 후원활동이라는 소극적 개념으로부터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시민의 주인의식의 표현으로까지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 호스피스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단순하고 소극적인 개념을 넘어서, 호스피스 다른 팀원들과 상호 균형적인 동시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시민의식의 표출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현재 6만명의 말기 암환자 중 호스피스 간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1천여명이 채되지 않는다. 자원봉사자들이 호스피스 활동에 자발적이고 대대적인 참여가 있을 때 이 사회에 호스피스가 보편화되고 널리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철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로서 호스피스에 참여할수록, 말기 환자들 누구나 다 호스피스를 받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갈 것이다. 바람직한 호스

피스 자원봉사자들이 늘어갈수록 바람직한 호스피스는 물론 바람직한 사회까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김준석. 국내외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국립암센터, 2002;1-9.
 - 2) 윤영호, 최은숙, 이인정, 이정석, 유창훈, 김현숙, 백유진: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실태 조사,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002;5:31-42.
 - 3) 윤영호: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방향,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화, 국립암센터, 2002; 10-19.
 - 4) 조 현, 강희숙, 김정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호스피스 케어 요구도 분석,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002;5:155-62.
 - 5) 김분한, 정 연, 박경복: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만족도 분석,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002;5:163-71.
 - 6) 김수지 외. 호스피스 총론, 한국 호스피스 협회, 2003;236-42.
 - 7) www.kgvc.or.kr, 경기도자원봉사자센터
-